

등록번호: 이천 라 00006 등록일: 2006년 8월 7일 발행일: 2023년 6월 15일 간행: 각월간 발행인: 박공정 발행처: 우리씨드 편집인: 서준혁
본사: 경기도 이천시 진장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정기간행물등록 41호 Vol. 64 | 가든인은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본지의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SPECIAL
ISSUE

특집

서울, 꽃의 도시, 정원을 거닐다.



▲ 2010. 서울시 공무원 대상 강연. 서울의 흔한 다층 식재를 시작하는 계기. 광화문 광장의 혼합정원은 그 시작이 되었다.

2009년,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

한참, 경기도 곤지암의 중부 CC, 라테나 CC, 아시아나 CC 등 국내 여러 골프장과 포인트 정원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남동 고급 주택 정원, 그리고 마침, 국회의사당 앞마당과 국무총리 공관, 국회 의장 공관 등에서 우리 정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였다.

말 많았던 문화문광장의 플라워 카페이 문제가 되자 광장 전체를 양전도로 덮어 포장한 이후였다.

대중, “요즘, ‘우리꽃’이 정원을 자연스럽게 잘 꾸미신다면 서요?”

“예?, 아 예-!”

“한번, 자유롭게 심어봐요!”

그리고 한 장의 작은 도면이 전달되었다.

도면에는 잔디밭 구역 외곽에 간단한 곡선의 평면. 대상지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 3~15m 정도의 선으로 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냥, 제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예, 해 보세요. 그런데 여긴 서울의 심장입니다.”
갑자기, 무게감을 느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뭔가 스멀스멀한 게 올라왔다.

“해 보자, 멋지게 해 보자, 기회다”

비록 잔디밭 외곽에 작은 면적을 조각낸 곳이지만 여러 주제를 보여주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가 답이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반드시 그곳에 있었을 것 같은 식물을 골랐다. 역세를 비롯한 그라스 종류를 고르고 (그 당시 그라스는 인기 없는 초종) 틀을 잡아주는 삼색과 황금조팝, 물싸리 등의 관목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자, 빨리 설계를 그려야 하니 품목표와 배치도를 주세요.”

“예, 설계요? 이것들, 지금 심는 게 아닌가요?”



▲ 2005년 우리씨드, 70만 화분을 이용, 여의도 공원 전체를 보리밭으로 물들이다.

“아니, 무슨 말씀을? 설계를 해야 심지.”

“예, 다년생 식물은 최소 전년도에 심거나 한 계절 전에는 심어야 하는데요!”

“예이, 안 돼요? 이거 내년 봄 3월이나 심을 수 있어요!”

“큰일이다. 내년 3월이면 나무의 잎도 없고 정원식물의 잎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내년 봄 시작과 함께 완벽해야 한다?”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가 재배과정에서 보면 중부지방의 늦서리를 피하기 위한 안전하기간은 최소 5월 초순인데 대책을 세워야 했고 또, 서울의 심장부를 내어주는 것이니 실수하면 큰일 날 것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숙제가 되었다. 시키는 분들이야 요구도를 전달하지만, 숙제를 받아든 우리는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무효이요 무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맞다. 미리 온실에서 혼합 혼식을 해서 현장에 나갈 때는 일부 꽃을 피워 사람들을 깜짝 놀라주면 되겠네.”

“자, 우리 팀! 모두 모여봐요. 한번 해 봅시다.”

“하우스 6동을 비우고, 서 과장은 내한성이 강한 비올라, 물망초, 알리섬 등의 트레이 묘재고 과약 총해주고, 톨립도 준비합니다. 나는 매트 생산에 맞는 사출업체를 불러 간단한 매트 판을 제작해야겠어요.”

“자! 서두릅시다.”

전략은 어찌 보면 좀 간단했다.

초기 야생화와 관목의 잎이 없는 점을 고려, 이들을 가리면서도 처음부터 여러 식물이 혼합된 화려한 정원작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워진 6동의 이중 비닐하우스의 식물들의 자람이 늦다. 영양제를 뿌리고 겨울 온도를 높이기 위한 수막 재배로 전환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가고 3월 10일쯤 연락이 온다.

“자, 준비되셨죠? 곧 심어야 합니다.”

“예-?, 지금은 아직 봄이 아니는데요?”

“아니예요, 서울은, 심는 날이 봄입니다.”

“아니, 이진 뭐지? 공장도 아니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러 공간을 나누어 식재를 완성했다.

눈치를 살핀다. 괜찮은 듯하다.

사실은 처음 의도한 대로 완벽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추위로 가지지 않은 때 정원이라니, 꽃을 피워야 한다나…….

며칠 후 급하게 전화가 온다.

“일전에 사용했던 그 혼합매트가 뭔가 있잖아요?”

“예, 혹시 물라 여유롭게 해 두었습니다.”

“그게 좋기는 한데 뭐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 무슨 식재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 혼합, 혼식식재 혹은 다층식재라 하면 될 듯 합니다.”

“혼합, 혼식식재요? 또 다층식재요?”

“예! 지금까지 서울은 팬지나 페튜니아 등 종류의 식물을 색으로 나누어 가며 색동 색으로 심었잖아요?”



2000년, 우리씨드는 콘테이너 사무실로 시작되었다. 사무실 앞에 조성된 혼합 정원.



▲ 2006년, 서울 정원박람회, 혼합다층식재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 2006년, 서울 정원박람회

“그렇죠?”

“그런데, 이 혼합 혼식식재는 전혀 다른 식물을 혼합하고 혼성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되면 정원식물이 모두 다른 층을 이루어 자연스러워지는 다층식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암튼 좋아요.”

“그 매트 좀 더 있어요?”

“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만 주변 교통섬이나 인공지반에도 조성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물도 안 주셔도 돼요. 물이 자동으로 흡수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럼요, 대단한데요. 그럼 광화문 사거리 앞 개천과 교통섬에다가 좀 설치해 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금방 하던데, 주말 이를 동안에 다 하실 수 있죠?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놀라겠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광화문, 정계 광장과 세종로의 교통섬에서 우리나라의 혼합 식재, 자연 정원들이 시도되었고 서울의 변화, 서울이 꽃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자연 정원, 다층식재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물론 '우리씨드'의 전

신인 '우리꽃'은 2000년 창업 때부터 식물의 특성에 따라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혼합 식재와 혼성식재를 결합한 다층식재를 통하여 자연스러움이라는 콘셉트에 맞춘 식재 방법을 개발했다.

최근 자연주의 식재와도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녹지 직 공무원들을 세종문화회관 지하 강당에 모시고 이른 강의와 현장을 탐방하며 진행하는 현장 강의를 요청받았고 혼합 식재와 다층식재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사실 우리씨드의 자연스러운 정원은 2006년, 최초로 서울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 우리씨드의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주제가 연못 정원과 아리가든을 결합하고 혼합 혼성식재의 자연스러운 정원을 선보였고 박람회 후 서울시장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던 전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다.

또한, 2009년 남산 1호터널의 수직 정원은 우리나라 수직 정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수직 정원'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



▲ 2009년, 구로 혼합매트 재배장

다. 그 이전은 영어로 Vertical garden을 '벽면녹화'라 표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수직 정원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단순한 벽면을 녹화시킨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수직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 디자인하고 그 기능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있었고 앞으로 지속가능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직 정원사에 깊이 남을 사건이 있다.

2016년 8월에 시공된 강동구형의 보건소 건물의 전면 피복이 그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 2009년 혼합매트 재배, 3월이면 현장 출하가능



▲ 2009년, 혼합매트는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꽃이 피도록 설계되었다.

많은 다양한 식물이 적용되었고 특히 관목의 적용은 우리나라 수직 정원사에 지속 가능함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수직 정원에 있어 소관목인 화관목, 철쭉 등의 관목과 야생화의 혼합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꽃 변화수에서 2007년 개발된 변화수 제품의 수직 정원용 식생 매트에 황금조팝 등의 관목 적용이 그 바탕이 되었고 식재 후 바로 완성형의 '행수'로 이어진 것이었다. 우리씨드와 변화수는 지속적인 건물 외벽 수직 정원을 발전시켜 지금은 겨울 상록이면서도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인 꽃을 피우고 지속 가능한 한 국형 K-수직 정원 '행수'를 완성하게 되었다.

'행수'는 겨울에 상록이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해서 꽃을 피우고 뿌리가 모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 지속 가능함에 도달한 시공 방법이다. 식물의 토양산도(pH) 요구에 맞추어 제공될 뿐만 아니라 물을 오래도록 가지거나 통기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역활까지 수행하게 해 식물이 행복한 수직 정원을 구



▲ 2009년, 구로 혼합매트 재배장



▲ 2010년, 정계광장의 꽃망귀비



▲ 2010, 서울시 공무원 교육, 식물 혼합매트를 이용한 다양한 혼합식재와 돌림 등 구급 혼성으로 계절을 알린다.

현한다. 그래서 이름도 '행수'이다.

특히, 최근엔 16t, 기반의 실내용 수직 정원 '이재'는 (주)조복에서와 함께 중부 투자를 줄이고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직접 생산시설인 금강조용시업단과 협력, 최고의 제품과 생산 시스템을 완성했다. 실내 수직 정원의 무관리, 무하자, 무민원의 3무 서비스의 실현은 앞선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미 복미 수출로 그 기술력은 국제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또한, 우리씨드에서 선보인 무관수 무관리형 매직 박스기든 '오아시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통섬이나 공원, 광장의 인공구조물에 간신히 설치하는 것만으로 도시 열섬을 해결하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도시농업 재소를 기르는 도심 내 혹은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겨울 상록을 유지하면서도 기본 식물 소재는 영속화되고 일부 1년생 식물만 교체하는 맞춤형 하단 정원



▲ 2010년, 완성형 혼합매트



▲ 2010년 8월, 광학문광장

으로 성장했다.

특히, 빗물을 이용해 탄소 저감과 탄소 재료의 목표에도 일조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물 주기의 회수를 극히 줄이고 관리가 특별히 필요 없어 담당자들에게 더욱 인기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회사에서 완성형으로 심어 배달, 설치까지 완벽하게 하는 서비스로 인해, 서울을 넘어 경기도로 그리고 부산에까지 소문이 자자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듯 '우리씨드'가 개발하고 적용해 온 다양한 식재 방법과 우수한 식물 소재는 우리의 정원문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다양한 정원식물을 육종하여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일본, 호주에까지 로열티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런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정원식물의 생장 습성과 형태적 분류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식물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책으로 정리하였다. 이 이론을



▲ 2010년, 세종로 매트정원으로 완성함



▲ 2010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자연주의 정원은 이미 오래 전 일이었다.



▲ 2010년, 1년생과 다년생을 혼합한 완성형 정원매트

기본으로 하는 소통 가능한 엽 개발을 통한 식물의 품종과 병충해를 알려주고 방제 방법과 방제약제 처방은 물론, 농약 방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다. 나눔 장터는 기본이다.

정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사진 찍고 서로 소통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직접 빠르게 제공하고 특히 손에 들고 다니는 식물 백과를 동시에 제공해 정원생활을 더욱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의 세계 최초의 앱일 것이다.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주는 나만의 클라우드인 내 도감은 식물 공부를 하거나 정원 공부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2010년, 광화문 광장 5월



▲ 2010년, 수직정원이라는 작명을 한 남산 1호터널



▲ 2010년, 세종로 인공구조물 위를 하루만에 매트정원으로 완성함



▲ 남산1호터널 수직정원 : 국내에서 최초로 '수직정원'이라는 단어를 창명하였다.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으면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온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해 누구나 정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씨드’의 기술력은 대한민국 공공정원의 역사가 되어 서울시와 함께 해왔다.

다시 한번 비상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식물의 사회학적 성격을 알고 미기후를 파악해서 식물 스스로가 행복하고 우리 인간과 공감을 맞추어 행복한 꿈의 정원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서울이 꽃이 핀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 가을 겨울이 더욱 아름다운 행복한 시민들의 정원이 되어 꽃이 핀다.



▲ 2010년, 강북재활용센터



▲ 2012년, 혼합식재 정원



▲ 2015년, 강동의 교통성에 설치된 오아시스, 도시농업 채소재배



▲ 2015년, 강동의 교통성에 설치된 오아시스



▲ 2015년, 서울정원박람회



▲ 2015년, 오아시스



▲ 2015년, 강동 교통성 도시농업 특화



▲ 2015년, 정릉 진화하는 수직정원



▲ 2016년, 부직포로 만들어진 결이화분은 물은 간단히 주면서도 작물 생육은 좋아 최고의 결이 화분을 제공한다.



▲ 2015년, 북서울 꿈의 숲



▲ 2016년, 결이화분



▲ 2016년, 오아시스



▲ 2016년, 오아시스는 물관리가 거의 필요없는 화단형 화분



▲ 2017년, 서울 정원박람회



▲ 2018년, 서울의 가로띠녹지, 정원을 가늠다.



▲ 2018년, 강동구청 답을 하물다.



▲ 2019년, 강동 교동성 돌정원



▲ 2019년, 강동구청 돌정원



▲ 2017년, 수직정원의 봄



▲ 2017년, 행수, 한국 수직정원의 새로운 방향 제시

CONSTRUCTION CASE

시공사례

수직정원

건물 외벽, 옹벽, 구조물 등의 벽면 녹화

아리가든

우리 자연의 선과 멋을 정원에 녹여낸 공법

오아시스

움직이는 대형화분으로 장소 제약없이 건물 앞, 교통섬, 도심광장, 공원에 설치

혼합혼성식재

제한된 면적 안에 여러 소재(일년생+다년생+관목+그라스+구근)를 이용하여 연중 아름다움을 표현

그라스 가든

큰 면적에 그라스의 질감을 살리고 포인트 식물을 적용



▲ 2009년 9월, 서대문 자연학습장



▲ 2010년 5월, 세종로 중앙분리대



▲ 2010년 7월, 중랑나들이공원 사무소



▲ 2010년 10월, 청계천



▲ 2013년 5월, 강북사람미술관



▲ 2015년 7월, 한강여의도공원



▲ 2015년 4월, 강동구청앞 교통신



▲ 2015년 4월, 중구청앞



▲ 2015년 7월, 북서울꿈의숲 옥상



▲ 2016년 4월, 구로구청앞



▲ 2016년 4월, 태치사거리 교통섬



▲ 2016년 4월, 세종대로 피복지



▲ 2016년 4월, 월드컵공원



▲ 2016년 5월, 강동도시농업박람회



▲ 2016년 8월, 고척로



▲ 2016년 4월, 구로구청앞



▲ 2017년 4월, 용마목포공원



▲ 2017년 7월, 디디마을



▲ 2017년 7월, 월천초등학교



▲ 2017년 9월, 버티고개 피복지



▲ 2018년 4월, 도봉 평화문화진지



▲ 2018년 5월, 천호1동 주민센터



▲ 2018년 6월, 서래골공원



▲ 2018년 6월, 서울시립대



▲ 2018년 7월, 강동구청앞 교통섬



▲ 2018년 7월, 강동구청앞 피복지



▲ 2019년 6월, 강동구청 옥상



▲ 2019년 6월, 영재역 광장



▲ 2019년 6월, 천호사거리 교통섬



▲ 2018년 9월, 서울시장 한반도꽃벽



▲ 2019년 7월, 서울광장



▲ 2019년 7월, 관악문화광장



▲ 2019년 6월, 혜화동로터리



▲ 2019년 9월, 잠실운동장



▲ 2020년 4월, 안양천



▲ 2020년 4월, 양재시민의숲



▲ 2020년 5월, 잠실 종합운동장



▲ 2020년 6월, 노원구청사 앞



▲ 2020년 6월, 마포구청앞 띠녹지



▲ 2020년 6월, 벽마사랑공원



▲ 2020년 6월, 방학사계광장



▲ 2020년 6월, 암사역사공원 방문자센터



▲ 2020년 6월, 명동상당



▲ 2020년 6월, 미관광장



▲ 2020년 7월, 국무총리공관 앞



▲ 2020년 7월, 이대역 앞



▲ 2020년 11월, 청와대 앞



▲ 2020년 7월, 세종문화회관 앞



▲ 2021년 5월, 노원구보건소 앞 화단



▲ 2021년 5월, 노원로 띠녹지



▲ 2021년 6월, 당현천 녹지



▲ 2021년 6월, 상암동광장



▲ 2021년 6월, 도봉로 띠녹지



▲ 2021년 6월, 서빙고동 가로녹지



▲ 2021년 6월, 방학로 띠녹지



▲ 2021년 6월, 서초 내곡꽃마당



▲ 2021년 7월, 강동구청역 앞 녹지대



▲ 2021년 7월, 노원로 띠녹지



▲ 2021년 7월, 노해로 띠녹지



▲ 2021년 7월, 노해로 띠녹지



▲ 2021년 7월, 명일 이마트 앞 가로녹지



▲ 2021년 7월, 복악산공원



▲ 2021년 7월, 삼각지역 앞 교통섬



▲ 2021년 7월, 송파구청 앞



▲ 2021년 7월, 양재시민의숲



▲ 2021년 7월, 원남사거리 교통섬



▲ 2021년 7월, 통납사거리 가로녹지



▲ 2021년 8월, 상신해맞이공원



▲ 2021년 8월, 서빙고동 교통섬



▲ 2021년 8월, 서울마곡식물원



▲ 2021년 8월, 석계문화공원



▲ 2021년 9월, 명암아파트 광장



▲ 2021년 9월, 불암산나비정원



▲ 2021년 11월, 회현역 교통섬



▲ 2021년 11월, 남가좌동 교통섬



▲ 2022년 6월, 용산 국방시설본부



▲ 2022년 4월, 서울대공원 입구숲



▲ 2022년 5월, 불암산나비정원



▲ 2022년 5월, 불암산나비정원



▲ 2022년 6월, 강동구청앞 락죽지



▲ 2022년 6월, 마포 메트로몰리스



▲ 2022년 6월, 서울시청 광장



▲ 2022년 6월, 양지근린공원



▲ 2022년 6월, 하늘빛정원



▲ 2022년 6월, 하늘빛정원



▲ 2022년 7월, 강일동 교차로 교통섬



▲ 2022년 7월, 고덕아이파크 앞 녹지대



▲ 2022년 7월, 구천면로



▲ 2022년 7월, 뽕밭 어린이공원



▲ 2022년 7월, 매봉산 근린공원



▲ 2022년 7월,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



▲ 2022년 7월, 봉납사거리 광장



▲ 2022년 7월, 강동구청 앞 교통섬



▲ 2022년 8월, 양원정마당



▲ 2022년 7월, 서울송악말



▲ 2022년 7월, 어린이대공원



▲ 2022년 7월, 한강 관나루 안내센터



▲ 2022년 9월, 동교동삼거리 교통섬



▲ 2023년 4월, 노원-의정부경계 교통섬



▲ 2023년 4월, 당현천 특화정원



▲ 2023년 4월, 당현천 특화정원



▲ 2023년 4월, 홍대문구청 앞



▲ 2023년 5월, 난지공원



▲ 2023년 5월, 삼남사거리 녹지대



▲ 2023년 4월, 중랑천 돌담정원



▲ 2023년 5월, 양남사거리 교통섬



▲ 2023년 5월, 영등포 엘지타워 앞 교통섬



▲ 2023년 5월, 온수골사거리 교통섬



▲ 2023년 5월, 양남사거리 교통섬



▲ 2023년 5월, 우이동 교통섬



▲ 2023년 5월, 온수골사거리 교통섬

런던-파리 정원여행기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관리사무소장
나경민 기술사

Beth Chatto Gardens

베스샤프 가든

베스샤프 가든은 10년 연속 첼시 플라워 쇼에서 금상을 수상한 가드너인 베스샤프가 94세로 죽는 날까지 가꾼 인생 정원이다. 베스샤프는 영국의 대표적인 건조지역의 메마르고 자갈로 덮인 척박한 땅을 다양한 시도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토질에 맞는 식물들을 찾았다. 이미 그 지역의 환경에 순응하여 야생으로 자라난 식물들을 과감하게 정원으로 들여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식물 자생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재적소의 식재 원칙(the right plant for

the right place)을 세우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책을 저술하여 가든 관리에 베스샤프의 철학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든으로 구성되어 조화롭게 섞여진 꽃들은 저절로 발길을 머물게 하였고, 기프트 샵에서는 가든에 피어있는 꽃을 전시하고 식물판매장은 분류에 따라 식물들을 전시·판매하였다. 가든은 예쁘게 가꾸어진 꽃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방문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그들만의 배려가 마음으로 전해졌다.



23.05.22.-05.30. 월간가드닝에서 진행하는 '23 영국-프랑스 정원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정원여행은 6월말 34년간 몸담았던 서울시 퇴직을 앞둔 나를 위한 선물이었으며, 지난 2월 황지해 작가에게 첼시 플라워 쇼에서 직접 작품을 관람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내가 정원과 처음 인연이 시작된 것은 서울시 조경과 녹화지원팀장으로 근무할 때 조경사회와 함께 진행한 2014년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이다. 매년 코엑스에서 전시하던 조경문화박람회를 서울시와 조경사회가 함께 서울시 한복판인 광화문광장으로 끌어내 조경문화에 대하여 시민들과의 공유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서울정원박람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며 생활 속에 정원문화 확산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2014년 서울정원박람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녀왔던 파리의 쇼몽 가든페스티벌과 독일의 정원박람회(BUGA-LAGA) 그리고 2022년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조성했던 "장미가 주인이 되는 정원"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다."는 인솔자인 장현숙 대표님의 말을 생각하며, 각각의 정원에 대한 소개보다 이번 정원여행을 통해 내가 보고 배우고 느꼈던 새로운 눈을 공유하고자 한다. 정원여행 패키지는 평소 정원을 가꾸고 좋아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20년 이상 꽃밭을 먹고 있다는 고수님들은 정원을 보는 차원이 달랐다. 똑같은 꽃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화색과 화경의 볼품 등 식물들의 차이를 알고 이야기한다. 유럽의 기후와 막힘없이 들어오는 빛과 넓은 공간에 자유롭게 팔을 벌리고 자라는 환경, 무엇보다도 식물이 심겨진 검은색의 땅에 관심을 가졌다. 정원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자체 생산한 거름으로 만든 토양과 충분한 백업공간은 식물들 건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Wisley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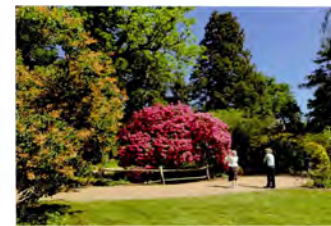
위슬리 가든

위슬리 가든은 이번 정원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저절로 고개가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을 벌려 긴 호흡을 하며, 온 몸으로 전해지는 강한 생명력과 생동감 그리고 청량함을 가득 채워 넣었다.

위슬리 가든은 몇 십년 동안 대원목으로 자라난 만병

초가 압도적이었는데 만병초 식물원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광활한 그늘으로 가득한 정원에 북 단저진 켈러가 입혀진 식물들이 그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었다. 우연히 마주친 가드너의 물주는 모습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식물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 하나하나에 시간을 체크 하면서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일행은 감짝 놀랐다. 그들만의 과학적 관리방법이 오늘의 위슬리 가든을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원칙을 지키는 가드너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가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Chelsea Flower Show

첼시플라워쇼

첼시 플라워쇼는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전시된 수많은 가든은 최상의 컨디션과 퀄리티를 자랑하였고, 가는 문화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넘쳐났다. 꽃대 높기로 유명한 첼시 플라워 쇼에서 한국인으로 3번째 수상을 한 황지혜 작가의 “치유의 땅: 한국의 산”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였다.

첼시 플라워 쇼에서 작품 안으로 들어가 황지혜 작가의 설명을 듣는 행운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황지혜 작가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작품에 쓰여진 소재들은 영국의 헨터가 30년전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씨앗을 들여와 기른 것이라며, 30년 전의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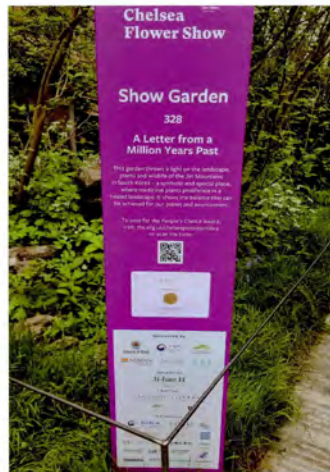
산이 걸어 나왔다. 관람시간 10분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했고 지난 1년간 노력하였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디테일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는지 봐 달라.” 고 하였다. 산이 없는 유럽에서 만나는 깊숙한 지리산은 한국에서 온 방문자 뿐만이 아니라 첼시 플라워 쇼를 찾는 많은 관람객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어디를 가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가든을 즐기는 노년의 어르신들이다. 노부부가 가든에 앉아 즐기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예쁜 꽃들을 사며 행복한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우아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는 강한 욕망으로 차올랐다.

발 디딜 틈이 없는 첼시 플라워 쇼에도 잘 차려 입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가득하다.

노년이 되어도 꽃을 즐기는 문화가 일상이 되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생활 속에서 꽃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한 축 북이며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첼시는 5월간에 이루어지는 꽃들의 쇼인 반면 파리의 쇼몽 가든페스티발은 4월에서 10월까지 열리며 식물의 생장과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nternational Garden Festival of Chaumont sur Loire

쇼몽가든 페스티벌

첼시의 완성된 꽃의 아름다움에 익숙해지니 쇼몽의 가든은 웅장 비어 보인다. 쇼몽성 보다 더 크게 천년이상 지라난 고목들이 즐비하고 아름다운 고성을 배경으로 매년 만들어진 정원들이 곳곳에 존치되어 새롭게 선보이는 정원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쇼몽 성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가든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도록 만드는 그들의 생각과 실행력이 인상적이었다.



Chelsea Flower Show

모네의 정원

자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정원은 모네가 반생을 지낸 곳으로, 그곳에서 모네는 화가이기 보다 정원사로서의 삶을 더 즐겼다고 한다. 보잘것없던 시골 마을인 자베르니가 모네가 남긴 모네의 정원으로 먹고 산다. 마을 곳곳에 정원이 만들어져 동네 전체가 모네의 정원이 되었다. 가든은 단순하게 어느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도 정원을 공동으로 가꾸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마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꽃밭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어딜가도 싱그럽고 생동감이 넘쳤는데, 파리에서는 건조하고 숨이 막혔다. 파리는 도시 자체가 커다란 분재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의 기하학적 무늬의 정원과 도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굵은 목대를 가진 나무들이 머리와 팔이 잘려있다. 과감하게 전지를 한 나무들이 보기에는 멋있지만, 억지로 잘려 나간 가지들로 인하여 내 몸까지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민 정책의 실패 원인도 있겠지만 소매치기 등이 늘름는 지금의 파리를 만든 것은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라내어 만든 나무들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인간의 오만이 결국은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영국과 프랑스 정원의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며 식물에겐 인간이건 본래 태어난 모습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였다. 마음껏 두 팔을 뻗고 하늘로 향한 나무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것을 생각하며, 정원을 만들 때 최대한 식물이 지닌 특성을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단단해진다.



용도가 다양한 전천후 재배화분!

매직박스(Hanging Garden)

(도시농업 텃밭, 걸이화분, 가로 화단에 특화된 저관리형 화분)

특징

- 화이트 톤의 심플한 형태와 색상으로 식물이 돋보이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 폴리프로필렌 재질(P.P)이며 내열성 및 강도가 좋아 튼튼하게 오랜 시간 사용가능합니다
- 공간제약없이 디자인 활용성이 다양합니다
- 토양층과 저수층이 분리 가능한 이중구조로 되어있습니다

FEATURE



디자인 활용



빛물저장형 관수시설



분리형 화분

CASE

- 옥상·베란다, 도로·가드레일, 가로등·기둥에 정원 연출, 최고의 도시농업용 텃밭 화분!

재배 후 현장에서 결합하여 깨끗하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우리씨드 URISEED
www.uriseed.com
연락처. 031-634-7990

정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코레우리(Coreuri)

봄부터 가을까지 쪽~핥니다!!



우리씨드 URISEED
www.uriseed.com
연락처. 031-634-7990

5월~11월까지 피는 꽃창피. 비료만 듬뿍 주세요.

장기개화용



코레우리 :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랑시리즈, 탕카벨시리즈

OLUS

色香味

GARDEN

아름다운 향기, 맛의 초화정원

OLUS GARDEN

Vol. 64

맛과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맛이 있는 신개념 정원 **Olus Garden [올루스 가든]**

olus는 라틴어로 나물, 푸성귀, 채소, 야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대에는 정원이 약초와 먹거리를 재배하는 장소로 시작되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원의 내재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여 이용성을 강화시킨 정원 형태이다. 다년 생 작물을 위주로 재배하며 정원에서 시기별로 꽃이 피고, 향기로운 꽃들을 꽃잎을 말려 쓰거나, 꽃차로 마시고, 채소는 샐러드로 이용하며, 절화하여 꽃다발, 꽃꽂이, 꽃바구니, 화환 등의 관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매년 과일과 채소를 심고 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1년생 대신 다년생을 심는 것이 답입니다. 다년생 식물에는 어떤 과일과 채소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일석이조 1번 심어서 계속 따먹는 과일과 채소 8가지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officinalis)



아스파라거스 채소 볶음

재료: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또는 색깔있는 야채), 양파 (적양파), 소금, 후추, 허브, 마늘가루
레시피: 채소를 알맞게 먹기 좋게 썰고, 아스파라거스만 미리 데쳐 준비, 버터나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채소를 넣고 센 불에서 볶다가 1-2분 후에, 소금, 통후추 간 것, 허브, 마늘가루를 넣고 섞어준다.



차이브 (꽃파) (Allium schoenoprasum)



에 둔다. 수확은 20cm 가량 성장하면 줄기 하단을 베어 수확하며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다. 주로 유럽의 요리,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웨덴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북유럽과 독일, 미국 등에서 대량 재배된다.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주로 이용되며 잘게 썰어서 말리거나 냉장 보관하여 두었다가 쓰고, 요리에는 주로 생잎을 이용한다. 잘게 썰어서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데 이용한다. 역사적으로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잘려서 말릴 수 있다. 꽃은 절화로도 이용되며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도 먹을 수 있는데,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수프 장식으로도 이용한다.

차이브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의 성분에는 유효성분이 있어 독특한 향미를 내며 식욕을 증진시켜준다. 차이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식욕증진, 강장효과, 혈압강하, 살균, 방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감자, 치즈, 요구르트 등과 맛이 잘 어울리지만 양파와 비슷한 향이 나서 잘게 썰어 수프에 넣거나 소스의 향을 내는 데 쓰인다.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의 향신료로 자주 쓰이며 우리나라 부추와 비슷한 모양이다.

차이브 무침

재료 : 까나리액젓 2T, 진간장 1T, 매실청 1T, 고춧가루 2/3T, 다진마늘 1/2T, 골파 (쪽파)
부리는 자르고, 데쳐서 양념에 잘 버무리, 통깨와 참기름을 넣고 먹는다.

골파 스크램블 에그

재료 : 달걀, 버터, 소금, 크림, 후추
달걀을 풀어서 소금, 크림, 다진 골파를 넣고 잘 저으면 후, 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익힌다.

서양 고추냉이 (Horseradish)



이 유쾌하고 톡 쏘는 조미료 성분은 자라기 가장 쉬운 십자화과의 다년생 식물이다. 햇볕이 잘 드는 위치와

좋은 배수가 필요하다. 봄에 양고추 냉이를 심고 두 번째 시즌의 가을에 뿌리를 수확한다. 다시 자라게 하려면 작은 뿌리를 땅에 남겨 둔다. 일반적으로 뿌리를 잘라서 키운다. 이른 봄에 뿌리를 뽑아마자 땅에 심고, 뿌리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깊은 구멍을 판 후에, 구멍에 뿌리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뿌리의 정수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덮일 때까지 구멍을 채운다. 뿌리가 심어지면 물을 충분히 준 다음 그대로 둔다. 양고추냉이를 키울 때, 식물에 비료를 주거나 아간법식을 띌 필요가 없다. 주의사항은 재배할 때 많은 공간을 제공하거나 확고한 경계선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식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범성이 강해서 재배지에 넓게 퍼진다.

고추냉이는 북 쏘는 매운 뿌리를 얻기 위해 재배하며, 61 ~ 91 cm까지 자란다. 화분에 심을 때는 배수가 있고 뿌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만큼 깊은 화분을 선택한다. 주위에 강하지만 서리 위험이 지나간 후에 뿌리가 자란 용기를 심거나 실내에서 시작한다. 1600년대에 유럽인들은 이 매운 식물을 음식에 사용했다. 1800년대 중반, 이민자들은 상업 시장을 개발할 목적으로 서양고추냉이를 미국으로 들여왔습니다. 1869년에 John Henry Heinz는 아버지의 고추냉이 소스를 만들어 병에 담았다. 온전한 양고추냉이 뿌리는 향이 거의 없다. 자르거나 갈면 식물 세포 내 효소가 시나그린(글루코시놀레이트)을 소화하여 무비등 과능의 점막을 자극하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겨자유)를 생성한다. 양고추냉이는 공기나 열에 노출되면 매운맛을 잃고 색이 어두워지며 쓴맛이 난다. 초식동물에 대한 자연방어로, 식물을 씹으면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방출되어 동물을 쫓아낸다. 서양고추냉이는 100g의 양으로 48 칼로리를 제공하며 비타민 C 함량이 높고 나트륨, 엽산 및 식이 섬유가 적당량 함유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필수 영양소는 함량이 미미하다. 고추냉이에는 휘발성 기름, 특히 겨자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와사비와의 관계

일본에서는 일본 조미료 와사비가 전통적으로 있지만 현재는 와사비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고추냉이로 만든다.

고추냉이 소스

휘핑크림(사워크림), 겨자, 마요네즈를 준비된 양고추냉이와 섞어서 스테이크나 구운 돼지고기에 올려 먹는다.

레올라드 소스

마요네즈 1 1/4 컵, 머스터드 1/4 컵, 달콤한 파프리카 1 큰술, 케이준 또는 크리올 시즌닝 1-2 티스푼, 준비된 고추냉이 2 작은술, 피클 주스 1 티스푼, 핫 소스 1 티스푼, 다진 후오크 큰 마늘 1 쪽을 함께 섞어서 풍미가 섞일 수 있도록 몇 시간 동안 토 후 냉장 보관한다.

타조고사리(청나래 고사리) (Ostrich Fern)



마당에 짙은 그늘과 축축한 구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 타조고사리를 심어보자. 그런 장소에서 타조 고사리를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어려운 재배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관상용 식물이다. 포자에서 자랄 수 있지만 평범이 좋은 재배자에게 식물을 주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식물은 일반적으로 이끼 또는 나무 부스라기에 싸인 휴면 상태의 맨 뿌리로 도착하며 심을 준비가 된 것이다. 타조 고사리는 뿌리가 퍼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에 심어야 한다. 크라운이 토양 바로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뿌리 주위에 보통의 흙과 물을 잘 채운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 첫째 정도는 타조 고사리를 돌보아야 한다.

타조 고사리의 첫 번째 우산 순위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때로는 잎이 자라기 시작한 다음 첫 번째 시즌 동안 여러 번 죽는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식물은 지하 뿌리 줄기를 통해 쉽게 퍼지고 곧 곧된 공간을 채울 것이다. 타조고사리 (계속) 왕립 원예 협회의 Garden Merit 상을 수상했다. 이 양치류는 매우 광대하며 특히 바린과 우박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여름 내내 잎이 아름다운을 잃는다. 매우 강건해서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재배되며, 다재다능하여 조경 식재에 많이 사용된다. 다른 식물에 대한 침범성이 강해 제어를 하지 않으면,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는 골칫거리이다.

피들헤드(fiddleheads) 라고 불리는 단단하게 감긴 미숙한 잎은 요리된 야채로도 사용되며 주로 북미 북동부의 시골 지역에서 별미로 간주된다. 익히지 않은 fiddleheads를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전역에서 수확되며(こごみ"kogomi") 이다. 잎부분의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새순을 식용으로 한다. 냄새가 없으므로 살짝 소금물에 삶은 후 양념국물(스이치)에 담그어 맛이 스며들도록 한다.

찌거나 굵거나 튀기거나, 수프와 샐러드에 추가할 수 있다. 환산화성분,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의 원천이며, 철, 섬유질이 많다. 소금을 줄여야 하는 사람에게 좋으며,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풍부하다. 쌀, 밀, 소와 같은 동물에게 발암성을 가지나, 인간에게는 아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사리 피클

재료 : 생어리고사리(또는 삶은 고사리) 두중, 천일염 1티스푼, 마늘 1쪽, 건조홍고추 1개
피클절임물 : 식초, 조식간장, 효소 1/2컵(또는 매실액)
레시피 : 씻은 고사리에 천일염을 뿌리고, 병에 담은 다음 식초+간장을 붓는다. 병에 담은 물을 따라내어 팔팔 끓여 식힌 후, 다시 병에 넣어준다. 이때, 다진 마늘과 큼직하게 썬 홍고추를 같이 넣는다. 완전히 식은 뒤 효소나 매실액을 채워준다. 간장은 옵션이다. 3일째부터 맛이 배어서 먹으면 된다.



산마늘



산마늘은 부추속에 속하는 다년생 생떡잎식물이다. 극동 러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자생하며 고산지대에서 자란다. 한국에서는 흔히 '명이나물'로 알려져 있으며, 울릉도와 강원도 고산지에서 재배한다. 마늘 냄새가 나고 부추 향이 나서 산마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알려지긴 했으나 잘 먹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 장아찌로 만든 명이를 구운 고기와 함께 먹는 방식으로 널리 퍼졌다. 산마늘이라는 이름은 다소 생소하고 '명이나' '명이나물'로 통한다. 명이(茗藣)라는 이름은 울릉도에서 겨울이 끝나 눈이 녹으면 산에 올라가며 먹어 생명을 이어갔다는 데에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나물 자체의 맛이나 향은 강하지 않으나, 아삭아삭하게 씹는 맛이 있는 것이 특징. 장아찌로 만든 명이는 삼겹살과 궁합이 좋다.

먹을 만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4~5년이 걸린다. 농장에서 토대 씨앗을 뿌리고 2~3년, 어린 묘종을 분발으로 옮겨서 다시 2~3년 정도가 지나야 먹을 만한 크기가 된다. 산마늘은 잎 사이사이에 흙과 불순물이 숨어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주어야 하고, 줄기의 끝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잎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만 지내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빨리 써서 팔려고 애 보곤 하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삶아서 물기를 꼭 짰 뒤 냉동하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장아찌를 담그면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괜찮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항암작용을 하며,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해소, 자양강장 효과도 있다. 또한 아미노산의 일종인 알리신은 비타민 B1을 활성화하고 항균작용을 하며, 폴레스테롤을 낮춘다. 산마늘의 비타민B는 세포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노와 예방에도 효과 있고, 비타민 A가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보호한다.

산마늘(명이나물) 무침

재료 : 명이나물, 식초, 설탕, 들기름, 고추장, 다진마늘, 올리브당, 통깨
레시피 : 명이나물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줄기부터 데친 후 찬물에 행구 실라놓는다. 고추장3큰술, 식초1큰술, 설탕1작은술, 다진마늘1큰술, 올리브당1큰술, 들기름1큰술, 통깨1큰술을 넣고 어슷썬 대파와 나물을 함께 무친 후 통깨를 뿌린다.

루바브 (대황, 장군꽃)



루바브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생떡잎식물이다. 한자로는 대황이라고 한다. 종종 진홍색 대황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대황의 색은 실제로 그 맛과 거의 관계가 없다. 대황은 실제로 분홍색과 반점이 있는 품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다. 6~10년생인 뿌리줄기의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완하제와 건위제의 생약으로 이용하며, 어린잎은 식용한다. 줄기가 셀러리같은 와삭거리는 식감과 과일같은 신맛과 독특한 향미로 설탕을 넣어서 타르트나 잼으로 만들어 먹는다. 뿌리에 가까운 적색부분이 섬유질도 많아서 질기고 맛이 강하며, 잘라서 푸레나 냉동 제품으로 많이 유통된다. 중국에서는 2,700년전부터 재배하여 약용으로 쓰였다. 찬 성질이 강해 열을 내리거나, 변비, 식체, 소화장애, 생리불순 등 다양하게 쓰였다. 약재로는 줄기가 아닌 뿌리를 쓴다.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에스트로겐 배타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독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 갱년기 치료에 사용했다. 대황은 키우기 쉽다. 서늘한 날씨, 비옥한 토양, 강한 태양을 선호하지만 약간의 그늘과 짧은 가뭄도 견디며, 이른 봄에 심는다. 배수가 잘되지 해서 뿌리가 썩지 않도록 조심한다. 자주 크라운에서 재배되며, 뿌리가 토양 아래 5~10cm, 서로 1m 정도 떨어져서 크라운을 심는다. 2년 가까이 수확을 보류하고 있고 뿌리에 독성이 있으므로 줄기만 섭취한다.

루바브 조림

재료 : 대황, 설탕, 라임
레시피 : 대황을 썰어 냄비에 넣고, 백설탕과 라임을 추가하여 중간불에서 잘 저어준다. 설탕을 더 넣어야 할 곳에서 끓이다가 식힌다.
용도 : 아이스크림, 푸딩, 요구르트, 커스터드, 와플 등 다양한 사용



썬초크, 예루살렘 아트초크

(돼지감자, 동면지) Helianthus tuberosus



돼지감자 나물

예루살렘아티초크로도 알려진 해바라기와 생들모, 울릉불꽃같은 감자 같은 뿌리를 먹기 위해 재배한다. 돼지감자라고도 부르며 아무데서나 잘 자라한다고 동면지라고도 한다. 북미가 원산 지이며,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땅 밑에서 자라는 동풍종이고 기형인 덩이줄기이다. 괴경은 가을에 파낸다. 이것은 감자처럼 요리하거나, 튀기고, 굽고, 삶거나, 마름과 비슷한 맛과 아삭아삭한 맛으로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예루살렘 아티초크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유익하다. 괴경에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소화 중에 포도당보다 더 좋은 과당으로 분해되는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식물은 2m 높이가까지 자랄 수 있으며 8월 말과 9월에 5cm정도 밝은 노랑색의 꽃이 핀다. 느슨하고 푹기가 잘 통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더 높다. 또한 약알칼리성 토양에서 더 많이 수확하지만 가정에서는 중성 토양이 잘 된다. 식재는 감자를 심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작은 덩이줄기 또는 2-3개의 썩이 있는 덩이줄기 조각을 이른 봄에 약 61cm 간격으로 5~8cm 깊이로 심는다. 물을 잘 주어야 하며, 괴경은 2~3주 안에 썩을 티운다. 이 식물은 침범성이 강해 통제하기가 어렵다. 돼지감자는 17도 이하가 되어야 덩이 줄기가 비대해진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 잎이 마르고 줄기가 양상해질 때가 수확 시기다. 이때부터 이듬해 봄 새로운 썩이 돋아나기 전

까지 수확할 수 있다. 감자와 토마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근처에 두어서는 안된다. 내년을 위해 뿌리 조각을 땅에 남겨 둔다.

물냉이 (크레송)



배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4~7월에 흰 꽃이 원뿔모양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눈이나 일년 내내 물이 있는 얇은 도랑, 또는 늪지에서 살며,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들지에서 저절로 자라거나 재배한다. "크레송"은 프랑스명으로써, 영어이름 "워터크레스"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 유럽인의 고기 요리에 귀중하게 쓰인다.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B1, B2, C, E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영양가 높은 채소다. 해독, 해열, 이뇨, 건위, 소화, 흥분작용 등을 하므로 당뇨병, 신경통, 통풍 등에 잘 들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하며 니코틴의 해독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가열하면 약효가 소멸된다. 녹즙으로도 즐겨 먹고, 생채로서 샐러드, 육류 요리에 곁들이고 생선 요리에도 쓰며 튀김도 만들고, 나물로도 무쳐 먹고, 장아찌, 국거리로도 이용된다. 특유의 특 쏘는 맛이 입속을 개운하게 해 주므로 기름기가 많은 요리를 먹은 후에 잘 어울린다.





이달의 정원식물

Monthly Garden

진정한 꽃의 계절

겨우내 식탁했던 정원은 봄이 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면서 한껏으로 반가운 미소를 보낸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반가움에서 인가, 우리는 간혹 봄에 많은 꽃이 피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정원으로 보아서는 봄은 겨우내 기다림속에 시동을 거는 계절이다. 예열된 봄을 지나 6월이 본격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꽃의 나래를 펼치는 계절이다.

6월, 우리의 정원, 한가득 꽃미소를 보내주는 정원식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무늬꽃창포

Iris ensata 'Variegata'



수줍게 꽃망울을 터트리는 초롱꽃을 앞쪽에 두고 보라색 꽃을 활짝 선보이는 꽃창포. 아니 그냥 꽃창포가 아니라 잎에 하얀 줄무늬가 선명한 무늬꽃창포.

꽃이 매우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꽃이 진 다음에도 잎의 무늬가 좋아 가을까지도 좋은 소재. 일반적인 꽃창포와 같이 수변에도 사용해도 좋고 짙은 잎의 형태와 잎의 무늬가 좋아 정원용으로도 효과가 좋은 식물이다.

샤스타데이지 실버문

Chrysanthemum maximum 'Silver Moon'



5월중순이면 샤스타데이지가 하얀 눈꽃을 피워낸다. 실버문은 뒤이어 5월말에 꽃대를 내밀어 6월이면 화사한 꽃망울을 피워낸다. 키가 작고 대가 튼튼하여 쓰러짐이 없어 정원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겹꽃으로 피는 꽃은 더욱 화사하고 중앙의 노란 꽃심과 하얀색의 꽃잎이 매우 잘 어울린다.

아스틸베

Astilbe arendsii



노루오줌이라고도 불리는 아스틸베는 개량된 노루오줌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노루오줌은 우리의 나무아래 계곡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이고 이를 개량하여 정원용으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변신한 것이 아스틸베이다. 크게 화색에 따라 분홍, 하양, 빨강 등 품종이 다양하다. 수변식물로 이용하면 좋고 꽃이 크고 화려하여 아주 건조하지만 않다면 일반 정원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몰리니아 / 갈풀

Molinia caerulea / Phalaris arundinacea 'Feesey'



본격적으로 그라스들이 기지개를 펴고 위로 솟아오르는 계절이다. 직선형의 품이 좋은 몰리니아. 앞쪽으로는 키가 작은 몰리니아 무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뒤쪽으로는 키가 큰 몰리니아 하이드가 선을 뽐내고 있다. 사이좋은 형제처럼 몰리니아 형제가 앞뒤로 그린의 깔끔한 느낌을 전달해준다. 그 사이로 하얀 줄무늬의 갈풀 페세이가 또 다른 시원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무늬억새 / 비누풀

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 Saponaria officinalis 'Cotton'



하얀색 줄무늬억새가 시원하게 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앞으로 역시 물심공실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사포나리아. 향기가 좋아 비누풀이라고도 불린다. 꽃이 질때쯤 한번 커팅해주면 새롭게 꽃대를 올린다.

서양 미역취/에키네시아

Solidago serotina / Echinacea purpurea 'Snow'



서양미역취라고도 불리는 솔리다고가 진노란 꽃무리를 형성한다. 생육이 강하고 화기도 길어 좋은 소재이지만 옆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강해 다른 식물과 혼식시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노란색을 바탕으로 하얀색 에키나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노란색과 잘 어울리며 이국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에키나는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정원식물이다.

수레동자 / 펜스테몬

Lychnis chalcidonica 'Maltese-cross' / Penstemon digitalis 'Husker Red'



주황색꽃이 모여 주먹형으로 탄스럽게 꽃을 피우는 수레동자꽃. 그 옆으로 윤기있는 적색의 잎이 좋은 펜스테몬의 하얀색꽃이 한창이다.

6월 기운을 받아 화색이 더욱 빛나며 6월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꽃백합 / 숙근사루비아

Lilium Asiatic / Salvia nemorosa 'White'



무늬억새 한포기를 중심으로 5월부터 피기 시작한 하얀색 숙근사루비아가 한창이고 하얀색 꽃백합 품종인 '나보나는 한송이 두송이 큰 잎을 벌리고 있다. 뒤이어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꽃대가 탐스러워 보인다.

코레우리

Coreopsis verticillata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등 각가지 색상을 뽐내는 코레우리 품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군식해도 좋고 정원에 혼식용으로도 좋다. 꽃이 장기

개화하므로 비료를 충분히 주고 1차 개화후 꽃이 지는 7월초쯤 커팅해주면 2주후 부터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자주달개비

Tradescantia andersoniana 'Blue'



보라색 달개비 꽃이 한창이다. 난처럼 생긴 잎 사이로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워내어 어느새 큰 꽃무리를 이룬다. 양지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며 꽃이 질때쯤 커팅해주면 다시 한번 꽃을 볼 수 있다.

꽃양귀비

Papaver rhoeas



강렬함과 화려함의 진수는 역시 양귀비이다. 가을이나 이른 봄 파종한 뒤 5월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6월 한창 절정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6월을 대표하는 빠질 수 없는 꽃이 양귀비이다.

튤립 / 에키네시아

Achillea millefolium 'Red Velvet' / Echinacea purpurea 'Yellow'

앞쪽으로 빨간색 비단을 펼쳐보이는 튤립 비단. 튤립은 파스텔, 오렌지, 레몬 등 그 품종이 다양하다. 5월말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여 6월에 만개를 한다. 그 뒤로는 노란색 에키나가 서로 앞다퉈 봉긋봉긋 솟아오르고 있다. 다른 에키나 품종보다 노랑에키나는 일찍 개화한다.



낮달맞이꽃

Oenothera fruticosa 'Sonnenwende'



5월말이면 달이 떠올라 6월이면 화려한 달맞이를 선보인다. 진노랑의 꽃은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준다. 키가 알맞게 자라 쓰러짐이 없고 생육이 강건하여 잘 자란다.

숙근사루비아 / 초롱꽃 켄트벨

Salvia nemorosa 'Marcus' / Campanula punctata 'Kent Belle'



라벤다와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숙근사루비아꽃이 한창이다. 초롱꽃 켄트벨이 청색의 꽃을 피어내며 고급스런 자태를 뽐낸다. 전체적으로 블루톤의 색상이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켄트벤의 탐스러운 꽃은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만큼 매우 아름답다.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Vivid Bright Light'



5월을 가로질러 6월에도 붉은 꽃가뿔을 선보이는 상록잔디패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아름다운 꽃을 수 놓는 상록잔디패랭이는 군식해도 좋고 정원의 알라딘식물로 이보다 좋은 패랭이는 없다.

분홍 조팝나무 / 백합

Spiraea japonica 'Darts Red'



관목으로 유명한 분홍조팝이 한창 화사한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사이로 분홍조팝과 혼성식재한 주황색 꽃백합이 위로 얼굴을 내밀며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룬다. 분홍조팝은 꽃이 지면 한 번 정정을 해주면 다시 한번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니포니아

Kniphofia uvaria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올랐지만 같은 이색적이면서

도 강렬한 꽃을 가지고 있다. 군식해도 좋지만 정원에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좋은 식물이다.

초롱꽃 '체리벨'

Campanula punctata 'Cherry Bells'



종 모양의 잘 익은 듯 빨간색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어난다. 금방이라도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식물이다. 켄트벤, 웨딩벨 등 다른 품종과 함께 식재해도 좋다.

꼬리풀

Veronica spicata



자주색의 촛불형태의 꽃이 가지런히 피어나고 있다. 꼬리풀도 블루, 리틀블루, 핑크, 로켓, 나나 등 색상과 형태적으로 다양한 품종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정원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무늬새

Salix integra 'Hakuro-nishi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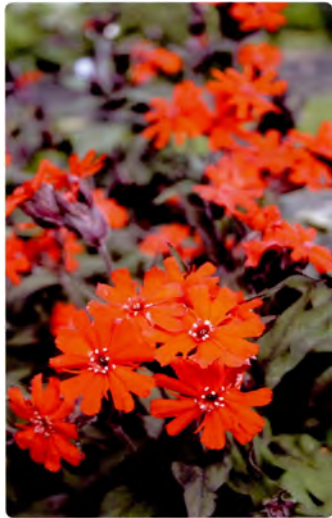


위로 쪽쪽 뻗은 직선의 형태가 아름다운 무늬종 그라스. 또 하나의 정점은 역새 등 대부분의 그라스가 가

을에 이삭을 맺는 반면 무늬새는 6월에 이삭을 맺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가을여색의 그 모습 이상이다.

붉은 동자꽃

Lychnis arkwrightii 'Vestuvius'



일반 동자꽃보다 진한 주황색의 꽃과 적색의 잎이 잘 어울리는 동자꽃이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꽃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화사한 정원식물이다.

옥잠화(호스타)

Hosta 'Blue Moon' / Hosta 'Golden Tiara'



나무아래 자리잡은 키작은 호스타 2품종. 마치 오랜 친구처럼 오순도순 사이좋게 자리를 잡고 있다. 블루톤의 질감이 좋은 품종과 노란줄무늬가 좋은 2품종이 잘 어울린다.

장미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미는 아직도 고전스럽다.
정원장미인지 절화용장미인지 혹은 베드형 화단장미인지 혹은 울타리형인지 퍼플라나 터널용인지도 모르게 사용되어 왔다.

“새로운 장미가 오고 있다”

박공영 박사

장미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미는 아직도 고전스럽다. 정원장미인지 절화용장미인지 혹은 베드형 화단장미인지 혹은 울타리형인지 퍼플라나 터널용인지도 모르게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정원바람이 불면서 감지되는 정원장미의 향기는 많은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한다. 오히려 유럽에서보다도 가격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미에 대해서 아주 후진적이었고 이제 정원의 불이 일

면서 정보의 역행과 혹은 선호 품종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물론 그 일시적인 현상이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미의 품종은 대략 1만 5천 종이라는 설도 있고 많게는 3만 종 이 넘는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많다. 장미의 품종을 혹은 계통을 분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지도 모른다. 원시 조상들의 계통은 뚜렷하지만 매우 많은 육종가들이 지구 곳곳을 누비며 수집한 원종과 또, 품종 수집에 의한 종의 결과가 낳은 현상이다.

따라서 그 원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지도 모른다. 특히 많은 장미 품종에 하이브리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원종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품종 종류 간에 남아있는 형태적 특성을 구분하여 대략적인 분류체계를 갖고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실할 일은 다음의 분류체계가 반드시 품종의 유전 특성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서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1. 장미의 분류

1) 영국 장미

영국 장미는 육종가인 데이비드 오스틴의 사계성 향기 장미로 대표되는 종류들을 일컫는다.

데이비드 오스틴은 향기가 뛰어나고 조밀하면서도 겹꽃 형의 낭만적인 꽃 모양과 병충해에 강하고 생육이 강건하여 재배가 쉬운 품종을 개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장미가 되었다.

개인의 노력으로 국가적인 명성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육종가의 힘이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인들의 정원사랑, 장미사랑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일생을 한 우물을 판 육종가의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장미 육종회사로 성장한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스틴 장미의 진정한 매력은 꽃의 아름다움 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향기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데이비드 오스틴 향기는 정원에서, 절화에서도 장미를 최고의 식물로 만든 것이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장미 육종회사로 성장한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2004년 데이비드 오스틴은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데 바로 결혼식이나 파티 등에서 사용되는 부케 혹은 꽃

다발을 각기 다른 색상과 향기를 여러 종류의 품종으로 구분해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또 한 번의 영국을 넘어 세계의 장미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그렇게 정원과 집안의 생활에까지 장미의 이야기를 써 온 데이비드 오스틴에게 감히, 진정한 찬사를 보낸다.



Rosa 'Rococo'



Rosa 'Brother Cadfael'



Rosa 'Eglantine'



Rosa 'Caroline Knight'



Rosa 'Dorsey-Bussell'



Rosa 'Desdemona'



Rosa 'Golden Celebration'



Rosa 'The Mayflower'

2) 플로리분다 장미

플로리분다라는 뜻은 '따다, 풍부하다'는 뜻이다. 즉, 꽃이 풍부한 장미를 뜻하는데 이들은 폴리안 사라는 아주 작은 꽃이 다발로 피는 장미원종과 하이브리드차와 교배하여 만든 종류도 대변된다. 하이브리드차 장미보다 꽃은 작지만 많은 꽃송이로 피어나 더욱 좋은 스프레이 장미로 피어나는 사계성의 장미로 정원에서 효과가 입증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와 같이 색상이 다양하며 파스텔화 하여 아주 화려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한성이 하이브리드차보다 강해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도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다. 형태는 키는 주로 평균 90에서 120cm 정도이며 폭은 60~90cm 정도이다.



Rosa 'Amber Queen'



Rosa 'Arthur Bell'



Rosa 'Europaea'



Rosa 'Bonica82'



Rosa 'Aspirin'



Rosa 'Kimono'

3) 그란디플로라

그란디플로라란 뜻은 '큰 꽃'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차와 플로리분다의 역교배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두 어버이보다 꽃이 크고 플로리분다보다는 꽃수가 적은 한 송이에 3~5개의 꽃을 피운다. 모양은 하이브리드차에 가깝고 최근엔 인기가 좀 떨어지기도 한다.



Rosa G. 'Queen Elizabeth'



Rosa Miniature 'Lupo'



Rosa Miniature 'Pepita'



Rosa Miniature 'Hotline'



Rosa Miniature 'Hotline'



Rosa Miniature 'Lupo'



Rosa Miniature 'Pepita'

4) 미니장미

우리나라에서 실내장미로 불리기도 하는 미니장미는 중국의 월계화(중국 장미)의 돌연변이 장미로 시작되었지만, 이 종류는 1회성 개화이며 이는 중국 장미의 돌연변이인지 정확하지 않다. 현대의 미니장미는 스위스에서 우연히 발견된 품종 'Roulettii'에서 파생되었다. 미니장미는 키가 작고 4계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0~60cm 정도로 자란다. 주로 화분이나 작은 화단 혹은 창틀 재

배에 좋고 간혹 집안에 들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효과는 정원에서 발휘된다. 더욱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다양한 식물을 혼합해서 심는 자연 정원에서 그 효과는 뛰어나다. 보통 5월 말 개화를 시작하면 11월 서리가 올 때까지 피어나다. 다만 어떤 종류들은 열매가 잘 맺으므로 꽃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잘라내는 데드헤딩 혹은 열매대 자르기를 해주면 더욱 좋은 꽃을 생산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불리는 찔레 장미와는 다른 종류이다. 말 그대로 일반 장미의 소형장미를 뜻한다.

5) 소형의 지피장미(찔레 장미)

사실 정원에서 가장 주목할 장미는 소형의 지피장미 혹은 찔레 장미로 불리는 장미이다. 미니장미가 없다면 이 종류들이 그 이름을 차지했을 법하지만, 전통적인 장미 모양보다는 더욱 자유로운 모양의 이 장미들은 지면을 피복하기 좋고 관리하기 매우 쉬운 장미이다. 사실 장미를 대표하는 하이브리드차 혹은 플로리분다 그리고 영국 장미는 그 특성이 매우 매우 까다로운 전

문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가지치기며 토양관리 물주기, 비료 주기 등 정원사에게 요구되는 기능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기르기 쉬운 장미를 원했다. 특히 번식에 있어서도 이들 주요 장미는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이 작은 지피 장미는 재배가 매우 쉽고 가지치기는 언제나 가능하고 증식 방법도 삽목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름답고 재배가 쉬운 찔레 장미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Rosa 'Crystal Fairy'



Rosa 'Fairy Queen'



Rosa 'Morsdag'



Rosa 'Morsdag'



Rosa 'Orange Morsdag'



Rosa 'The Fairy'



Rosa 'Wine Koster'

6) 덩굴장미

우리는 보통 덩굴장미라고 하면 긴 줄기를 내고 벽면을 덮거나 울타리를 만들고 혹은 파골라의 로넬틱한 풍경을 만들거나 장미 터널을 연상한다. 그러나 덩굴형 장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덩굴장미는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장미에서도 비슷하게 보인다. 다만 다양한 장미의 종류 중 돌연변이에 의해 조금 더 줄기가 가늘어지고 길게 자라는 것을 통칭해서 덩굴장미라 구분하여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덩굴장미를 완전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한국의 남쪽에 자생하는 땅딸레인 용가시덩굴 찔레와 일반적인 덩굴을 이루는 찔레를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용가시덩굴 찔레는 남쪽 바닷가 등에서 큰 바위를 타고 땅을 기면서 자라는 종류로 시작할 때와 종간의 줄기 굵기가 거의 비슷하고 다른 물체가 없을 경우 땅에 붙어 자란다. 이런 장미를 등반형 장미라 한다. 대신, 우리의 덩굴형 찔레와 같이 주로 키는 2~3m 정도 자라며 이치형으로 자라지만 긴 줄기를 내는 종류를 덩굴형 덩굴장미라 구분할 수 있다.

① 등반형 덩굴장미

등반형 덩굴장미는 줄기가 가늘지만 길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물체나 가동 등이 없으면 스스

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미로 매우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전년도 가지에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1회성 장미로 구분된다. 다만 이들은 줄기의 전년도 목은 마디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게 되는데 이 새로운 가지는 모두 포도송이와 같은 큰 송이의 꽃을 가지 끝에 피워 매우 화려한 개화기를 갖는다. 이들은 1년에 4~6m 이상 자랄 수 있다. 그리고 높이 오르는 품종의 경우 15m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무서운 갈고리형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장미와는 다르게 물체를 잡고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장 큰 용도는 장미 터널과 같은 대형의 터널을 덮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만 이들 품종의 단점인 1회성 개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화 시기가 다른 클레마티스 등과 함께 식재하거나 덩굴형 장미의 단점인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 함께 식재하면 서로 보완적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등반형 장미는 덩굴형 장미보다 관리가 쉽다. 그들은 질서가 없고 어수선해 보이고 몇 년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 무성함 나머지 관리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과감하게 잘라주면 그뿐이다. 즉 세심한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최근 많은 육종가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계성 등반형 개발되고 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이런 품종은 덩굴형 장미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등반형 품종으로 추천할 품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품종 중 하나인 '우리씨드'가 개발한 눈꽃은 찔레이다. 눈꽃은 찔레는 용가시덩굴의 변이종으로 땅이凍으면 1년에 10m 이상 자라며 높이 25m까지 자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등반형 장미이다.



눈꽃은 찔레

내한성이 강하고 5월 말에서 6월에 피는 붉은 꽃송이는 30cm 이상 100송이 이상의 꽃으로 엄청난 꽃의 덩굴을 이룬다.

따라서 절개면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절토지 혹은 시멘트 절벽을 위에서 혹은 아래서 심어 피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품종이 없을 정도다. 특히, 대형차터널을 빨리 피복하고자 할 때 최고의 품종이다. 또한 기존 장미 터널을 만들고 덩굴장미를 이해하지 못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터널을 완성하지 못한 곳에 적용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이면 반대편으로 넘어갈 정도의 세력을 보여준다.



Rosa 'Paul's Himalayan Musk'



Rosa 'Baby Romantic'



Rosa 'Claire Austin'



Rosa 'Alaska'



Rosa 'The Albrighton Rambler'



Rosa 'Graham Thomas'



Rosa 'Souvenir du Dr. Jamain'



Rosa 'Sympathic'



Rosa 'Chloé de Felgonde'

② 덩불형 덩굴장미

덩불형 덩굴장미는 우리의 찔레와 같은 덩불형 혹은 아치형으로 생각하면 무난하다. 다만 꽃피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혹은 프로리분다 형으로 피어난다는 것이다. 묽은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꽃을 피우고 한여름을 건너 단단한 가지에 가을이 되면 새로운 가지가 발생하며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혹은 플로리분다의 특성과 같이 다양한 화색과 향기를 가지는 장점도 있다. 다만 덩불형 장미는 굵은 줄기가 아치형으로 자라는 특성을 유인하고, 고정해 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꽃을 지속적으로 피우기 위해서는 세심한 가지치기와 유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덩불형은 보통 180~360cm 정도로 자라는 특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터널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울타리나 파티오 등에 적합한 종류이다. 물론 품종 중에는 4m 이상 자라는 품종도 있지만, 공공의 정원에서 큰 터널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덩불형과 등반형을 혼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지역의 장미 축제 등을 준비할 때 무더기나 터널 장미로 등반형만을 사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나하면 원하는 만큼 키가 크지 않고 키가 크더라도 오랜 기간 길질 뿐만 아니라 덩굴 유인과 정전의 전문

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 장미정원에 좋은 도우미 식물

장미는 5월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리고 최근 4개월의 장미는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장미가 그려내는 계절적 경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혼합 자연 정원에서 이른 봄부터 5월까지의 장미철과 아주 무더운 여름, 그리고 늦가을 장미정원은 대체로 을씨년스럽다. 이런 장미정원을 보완하면서도 한 종류의 식물이 심어진 군락을 병충해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특히, 장미는 해충과 질병에 취약하다. 따라서 장미정원의 이런 특성을 보완하고 아름다운 경관 연출과 다양한 이점을 위한 도우미 식물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식물 요소가 혼합되어 더욱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연장하기도 하며 다양한 창조적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동반 식물 혹은 도우미 식물이 필요하다. 장미정원과 결합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동반 식물과 도우미 식물의 선택과 적용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① 장미는 병충해에 취약하다.

장미를 집단으로 키우는 것은 장미를 좋아하거나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즉각적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장미에게 유익한 곤충을 유인하고 유해곤충 및 질병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우미 식물과 함께 식재될 때 더욱 건강한 장미정원이 된다. 예를 들면 알리움과 같은 식물은 진딧물, 바구미, 천공충 및 두더지 등을 쫓아 주는 효과가 있다. 이질풀(제라늄)의 경우는 딱정벌레, 진딧물 및 기타 곤충들을 막아주고 특히 금잔화와 공작초 등은 장미에게 치명적인 선충과 많은 해충을

실질적으로 퇴치해 주는 효과가 있다. 유럽의 장미 증식재배농장에서 이어지는 연작장해와 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반드시 윤작하는 휴경포지에 대마적인 금잔화와 메리골드(주로 공작초)를 재배한다.

② 장미는 이른 봄꽃을 피우지 못한다.

장미는 조밀하게 심는 게 아니며 매년 전정으로 불 장미정원은 주로 줄기만 문복하게 자란 상태로 노출된다. 이런 시기에 무너져도 추식구근의 존재는 가히 동반 식물로 최고이다. 크로쿠스와 무스카리, 스노우드롭, 수선, 하인스, 튤립, 알리움까지 말 그대로 봄 구근 축제를 반드시 추천한다. 즉, 튤립 축제를 장미 축제 전의 사전 행사로 기획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 좋은 것은 굳이 캐내지 않아도 되는 종류들을 늘려 심는 것이다. 윈시 튤립과 수선 등과 알리움들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여름 장미기 이후 높은 고온에는 어떤 종류도 꽃을 잘 피우지 않지만 우리씨드에서 개발한 코레우리의 다양한 품종이 기다린다. 코레우리는 장미보다 키가 작은 특성이 있고 가장 늦게까지 개화하는 특성이 있다. 물론 장미와 코레우리 모두 강한 햇빛을 요구하고 많은 양분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언제든지 추비 가능하다. 그리고 코레우리는 언제든지 잘라도 2주 뒤면 새로운 꽃을 피우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가을을 위한 장미정원은 핑크튤립과 익새 그리고 장미를 보호하는 알리움 중 우리나라의 산부추는 또 다른 장미정원을 선물할 것이다. 또 장미가 피는 시기이면서도 서로 잘 보완하거나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이질풀, 분홍달맞이, 코레우리, 가우라 베이비리치즈, 이질풀 등과 좀 더 쉬운 방법은 매 가을과 봄에 뿌릴 수 있는 1년생도 좋을 수 있다. ③ 장미는 지나친 경장을 원하지 않는다. 장미는 햇빛을 좋아하고 지나친 경장을 원하지 않는

다. 따라서 키가 큰 관목이나 세력이 좋은 종류들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장미가 주인이므로 너무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의 식물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공격적이거나 침략적인 식물은 제외하고 장미의 뿌리가 생육하는 데 방해할 최소화하기 위해 장미와 20~30cm를 띄우고 가까이 심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장미를 절편과 근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매우 중요하므로 통풍을 너무 저해하는 혼합식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의 길을 열어 둘 일이다.

④ 장미는 성격이 까다롭다.

장미의 야생종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장미의 성격을 까다롭게 했다. 따라서 장미와 잘 어울리고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도우미 식물은 장미와 동일한 성격과 생활형을 갖는 것이다. 장미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양호한 토양을 선호하며 일단 자리를 잡은 장미는 균형적인 양분과 수분 요구량을 가진다. 그리고 꽃을 지속적으로 피우기 위해서는 그 시기별로 요구도가 달라지는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그 동반 식물들도 성격이 유사한 물, 비료 등의 요구와 병충해 관리가 필요한 종류들이 유리함으로 아름다운 관상을 그라스와 한해살이, 다년생, 관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장미의 식재 및 관리

① 심는 거리: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같은 품종 3주를 조밀하게 그 묶음으로 식재하여 하나의 포기처럼 풍성한 터널을 형성한다. 이것은 매년 잘라내야 하는 장미의 특성상 한 포기만 빠른 형태를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림의 품종 간 거리는 30~45cm 간격이면 좋고 다른 품종 그룹 간의 거리는 최소 60~90cm의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러나 울타리 등의 열석의 경우는 30~45cm로 심어 어느 정도 밀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② 토양 유형:

장미는 다양한 토양 유형에 적응해온 식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토양 조건에서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심기 전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잘 발효된 퇴비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장미는 뿌리를 말리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장미가 화분에 심어진 채로 오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베어루트 상태로 이동되고 판매되기도 한다. 만약 화분에 심어진 상태가 인공도와 즉,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등으로만 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토양을 털어내고 심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 뿌리를 말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 뿌리모 상태이거나 토양을 모두 털어낸 상태라면 심기 전 식물 전체를 밭세 물에 완전히 담갔다 심어야 한다. 심을 때는 지지부(뿌리)와 줄기의 경계부, 주로 새싹이 처음 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추운 지방에서는 약 5cm 정도를 깊게 심고 남부와 제주 등에서는 지면 높이에 맞추어 심는 게 동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물은 즉시 흠뻑 주고 장미의 잎이 나올 때까지 집이나 흙 또는 바크 등으로 줄기를 적당히 덮어줄 필요가 있다. 이때 약 3~7cm 깊이로 덮여준다.

③ 물주기:

규칙적인 물주는 필수이며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흠뻑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물빠짐이 잘 되지 않는 곳이나 물이 고인다면 배수로를 허거나 양자배수를 실시하는 게 좋다.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은 장미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다만 통풍과 통기성은 장미를 건강하게 하는 필수 요소를 명심해야 한다.

④ 비료 추가:

최근 좋은 장미 품종은 개화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육기간 동안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고 그 양분의 종류는 골고루 영양소가 함유된 것이어야 한다. 주로 4종류 비료 일컫어지며 간혹 영양제를 주거나 색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인산비료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을 너무 늦게까지 비료가 지속되어 늦가을까지 진하고 무성한 모습을 하고 계속 성장하던 겨울 치명적인 냉해나 동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늦가을 혹은 이른 봄과 충분한 퇴비를 주고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5~6월 최고의 시즌이 지나면 가지치기와 함께 적절한 영양제를 염면 시비하는 것이 빠른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⑤ 멀칭:

멀칭의 효과는 비록 장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멀칭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특히 장미정원의 경우 멀칭은 수분 유지와 땅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보온하는 것이다. 따라서 멀칭제로 멀칭 등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수입박보다 국내산 바이오차 등이 좋다. 다만 국내의 경우 집중된 강우와 긴 장마철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더위와 다습한 상황을 고려해 부직포 등을 덮고 최소한의 멀칭이나 바이오차 혹은 바크 등을 덮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결론은 적절한 수분 유지와 통기성 확보가 상식임을 알고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오세요!

“정원은 자랑입니다.”

“정원은 품종입니다.”

“정원은 나눔입니다.”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다운로드

AI 정원식물 수집 앱

정원식물 15,308종
병충해 진단·처방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